

##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와 그 의미기능\*

송 정 근\*\*

I. 서론	VI. 결론
II. 형태소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	<참고문헌>
III. 내적변화를 통한 감각표현	<국문요약>
IV. 중첩을 통한 감각표현	
V. 감각표현을 위한 형태론적 절차의 상관관계	

### I. 서론

한국어는 미묘한 감각의 차이를 ‘어휘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한국어 화자들은 자신이 인지한 자극을 표현할 풍부한 감각표현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붉다’라는 시각 표현에 대해 ‘불그스름하다, 발갛다, 붉디붉다, 불긋불긋하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고, ‘짜다’라는 미각을 표현하는 형용사에 대해 ‘짹짹하다, 짹짹하다, 짹짹하다, 짜디짜다’ 등과 같은 단어들도 확인된다.

그런데 하나의 감각에 대해 표현하는 어휘들 간에는 긴밀한 형태론적 관련성이 관찰된다. ‘불그스름하다, 불긋하다’는 ‘붉다’의 ‘붉-’에 ‘으스름하-, 윗하-’ 등과 같은 어형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고, ‘붉디붉다, 불긋불긋하다’에서는 ‘붉다, 불긋하

\* 본고는 2009년 6월 13일에 있었던 세계한국어문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국어학 전공(jksong2@snu.ac.kr).

다' 등의 어간 혹은 어근이 중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그스름하다'에 대해 '불그스름하다, 빨그스름하다, 뽀그스름하다' 등과 같은 어휘가 존재하는데 이는 감각 표현에서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가 감각의 표현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가 풍부하다는 진술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감각표현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절차들 역시 풍부하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한국어의 감각표현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 가. 파랗다-새파랗다, 길다-길쭉하다
- 나. 김다-깎다, 싸늘하다-씨늘하다
- 다. 거칠다-거칠거칠하다, 길다-길디길다

(1)은 한국어의 어휘적 감각표현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형태론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1가)에서는 '새-'나 '-쭉-'과 같은 형태소를 통해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1나)에서는 자음이나 모음 교체를 통해, (1다)에서는 어간의 중첩을 통해 인식된 감각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1)에서 확인되는 한국어 감각표현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절차들의 의미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대상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인체의 수용 기관에서 인식된 양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들 가운데 다양한 형태론적 절차가 확인되는 예들로 한정한다.

한국어 감각표현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절차들의 의미 기능과 역할을 밝히기 위해 형태소들의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 양상(2장), 자음이나 모음 교체를 통한 감각표현 양상(3장), 중첩에 의한 감각표현 양상(4장) 등을 검토하고 5장에서 이들 형태론적 절차들의 상호 관계를 다루도록 하겠다.

## II. 형태소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

형태소들의 결합은 가장 보편적인 단어형성 절차이다. 새로운 개체나 개념을 표

현하기 위해 기존의 형태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화자들로도 가장 손쉽게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론적 절차로 볼 수 있다. 형태소들의 결합은 결합하는 형태소의 성격에 따라 실질형태소들의 결합인 합성과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접사)의 결합인 파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단어형성 절차를 고려할 때, 한국어 화자들이 파생이나 합성과 같은 형태소 결합의 형태론적 절차를 통해 감각을 표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표현을 위한 형태소 결합의 형태론적 절차에서 합성이나 파생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합성의 경우, ‘맵짜다, 뽕등글다’ 등의 단어가 확인되지만 이른바 비통사적 합성어로 그 형성 방식이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어간의 합성 방식이 아니고, 그마저 수가 많지 않다.

파생의 경우에도 어기(base)와 접사의 결합이라는 큰 체계는 보편적인 단어와 동일하나 ‘-하-, -다랗-, 시(싹/새/셋)-, 드-’ 등을 제외하면 파생 과정에서 분석되는 접사의 수가 많지 않다. 오히려 어기와 접사 사이에 다양한 형태소들이 분석되는데 이들이 감각표현에 있어 특별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달콤하다, 길쭉하다’ 등의 단어 분석에서는 어간 ‘달-, 길-’과 접사 ‘하-’ 사이에 ‘-콤-, -쭉-’ 등의 형태소가 분석되고 이들이 ‘달다-달콤하다, 길다-길쭉하다’의 비교에서 확인되듯 감각표현에 있어 중요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소들은 감각표현과 관련된 일부 형용사 부류에서만 확인된다는 점, 분포의 측면에서 형용사 어간과 접사 ‘하다’ 사이에서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의미 기능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감각표현의 핵심 요소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근을 형성한다는 점, 연이어 연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선행 어기뿐 아니라 후행 성분에 대한 제약을 갖는다는 점 등에서 접사와 차이를 갖는다.<sup>1)</sup>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형태소들을 어근형성요소로 명명하고 접사와는 별도로 감각표현 기능을 검토하겠다.

---

1) 송정근, 「현대국어 미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36쪽.

### 1. 어근형성요소의 감각표현

감각형용사의 분석에서 어근형성요소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확인되는데 이들의 일반적인 감각표현 기능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 (2) 가. 거무레하다, 말그스레하다, 가느스름하다, 둥긋하다  
나. 질깃하다, 눅진하다, 달짝지근하다

(2가)는 시각적인 감각 표현에 있어 색채, 명암, 크기, 모양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어간과 접사 ‘하’ 사이에서 ‘-(으)레-, -(으)스레-, -(으)스름-, -(으)스’ 등의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형용사들이다. (2나)에서는 ‘질기다, 눅다’와 같은 재질, 습도를 나타내는 촉각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스-, -진’ 등이 결합된 단어와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 어간 ‘달’에 어근형성요소 ‘-짝지근’이 결합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2)를 통해 어근형성요소가 시각을 비롯하여 촉각, 미각 등의 여러 감각에서 다양하게 분석되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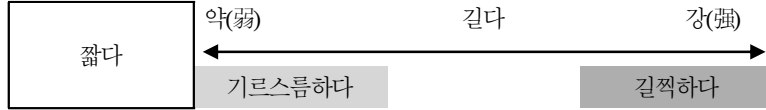
(2)에서 어근형성요소는 감각표현의 의미 기능 측면에서 결합하고 있는 어간 감각의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고 있다. ‘거무레하다’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조금 겹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겹다’라는 의미 영역을 상징했을 때 약한 수준의 겹은 정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근형성요소의 감각표현 양상은 (2)의 다른 단어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어근형성요소가 약한 정도성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3) 가. 길다 - 길찍하다, 멀다 - 멀찍하다, 높다 - 높직하다.  
나. 길다 - 길쭉하다, 걸다 - 걸쭉하다, 넓다 - 넓죽하다  
다. 깊다 - 깊숙하다

(3)에서 분석되는 ‘-찍-, -쭉/죽-, -숙’ 등은 감각표현에 있어 (2)와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그 정도성 표현에 있어 (2)가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면 (3)은 강한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길찍하다’는 “꽤 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기르스름하다’의 “조금 길다”와 비교했을 때 부사 ‘조금’과 ‘꽤’의 차이만큼 정도성의 표현에

서 의미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다.)<sup>2)</sup>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스름-’과 ‘-찍-’의 의미 비교



‘길다’와 ‘짧다’를 하나의 척도(Scale)로 볼 때, ‘기르스름하다’는 ‘길다’의 개념에서 ‘짧다’와 가까운 쪽에서 조금 긴 상태를 지시하는 반면, ‘길찍하다’는 ‘길다’의 개념에서 ‘짧다’와 먼 쪽에서 꽤 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정도를 표현하는 어근형성요소는 ‘길다, 멀다, 높다, 굵다, 넓다, 깊다’ 등과 같이 극대립 형용사 가운데 주로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형용사 어간에 보이는 특징을 보이지만, ‘낮다-나직하다, 얇다-얇찍하다, 가늘다-가느직하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상은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형용사 어간과 주로 결합하는 접사 ‘-다랗-’이나 척도명사를 형성하는 접사 ‘-이’와 매우 유사하다 하겠다. 형용사 어간과 어근형성요소의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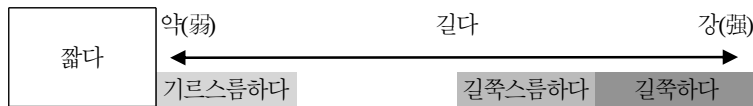
- (5) 가. 거뭇하다 - 거무스레하다, 불긋하다 - 불그스레하다
- 나. 달콤하다 - 달크무레하다, 시큼하다 - 시크무레하다
- 다. 길쭉하다 - 길쭉스름하다

2) ‘길다’와 관련된 ‘길쭉하다, 길찍하다, 기르스름하다’의 의미 차이가 개인의 직관이나 사전에 따라 다른 듯하다. ‘길쭉하다’를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사전』)에서는 ‘조금 길다’로 뜻풀이하고 있어 ‘-쭉-’이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길쭉하다’는 ‘길찍하다’보다는 조금 짧고 ‘기르스름하다’보다는 더 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져 ‘조금 길다’라는 뜻풀이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표준사전』에서는 ‘기르스름하다’를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고 있어 ‘길찍하다’가 꽤 긴 상태를 나타내고 ‘길쭉하다’는 조금 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기르스름하다’는 『한국어 형용사 사전』이나 『우리말큰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길이의 정도성에 있어서 ‘기르스름하다<길쭉하다<길찍하다’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가)는 어근형성요소 ‘-(으)스-’과 ‘-(으)레-’ 등이 어간에 연속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으)레-’는 ‘검다-거무레하다, 붉다-불그레하다’에서 확인되는데 그 의미가 약한 정도의 정도성을 표현하는 어근형성요소이다. (5나)에서는 ‘-(으)레-’가 ‘-큼-’에 후행하여 연쇄되고 있다. (5다)에서는 ‘-스름-’이 ‘-쭉-’에 후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5)의 감각표현 양상을 검토해보면 어근형성요소는 결합하는 선행 어기의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무스레하다’는 ‘거뭇하다’보다 덜 검은 상태를 나타내고, ‘달크무레하다’는 ‘달큼하다’보다 역시 덜 단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5가)가 약한 정도성 표현을 하는 ‘-(으)스-’에 다시 약한 정도성 표현을 하는 ‘-(으)레-’가 결합된 반면, (5나, 다)는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큼-, -쭉-’에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레-, -스름-’이 결합된 셈이다. 여기서 ‘길쭉스름하다’의 의미를 (4)의 정도성 척도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길쭉스름하다’의 정도성 의미



어근형성요소의 분포 양상을 검토해 보면 (5가)와 같이 약한 정도성 표현의 어근형성요소에 다시 약한 정도성 표현의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유형과 (5나·다)와 같이 강한 정도성 표현의 어근형성요소에 다시 약한 정도성 표현의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유형만이 확인된다.

어근형성요소가 감각표현에 있어 정도성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7) 가. 거무테테하다, 노르테테하다, 불그테테하다, 푸르테테하다
- 나. 거무죽죽하다, 노르죽죽하다, 불그죽죽하다, 푸르죽죽하다
- 다. 노르끄레하다, 노르께하다, 노리끼리하다

(7) ‘-테테/테테-3), -죽죽/죽죽-, -끄레-, -께-, -끼리-’ 등의 어근형성요소가 색채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 단어들이다. 여기서 분석되는 어근형성요소들은 감각표현에서 있어 정도성 표현의 의미도 어느 정도 감지되지만 그보다는 해당 감각에 대한 가치판단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즉 ‘검다-거무테데하다’의 비교에서는 ‘거무테데하다’가 갖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의 의미가 부각되어 느껴지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사전』)의 뜻풀이에서도 이들은 ‘산뜻하지 못하고 천박하게’ 혹은 ‘칙칙하게’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어근형성요소를 통해 가치판단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는 ‘흐리다-흐리터분하다, 흐리멍덩하다’, ‘어둑하다-어둑충충하다’ 등의 예가 더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주로 시각형용사 특히 색채나 명암을 나타내는 감각형용사에만 나타나고 그 수도 많지 않아 어근형성요소를 통한 보편적인 감각표현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근형성요소를 통한 감각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예들도 확인된다.

- (8) 가. 번하다 - 번쩍하다, 번쩍번쩍하다
- 나. 거칠다 - 거칠하다

(8가)에서는 공시적으로 ‘번하다’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번하다 - 번쩍하다’의 관계에서 ‘-쩍-’을 어근형성요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8나)에서는 위에서 주로 약한 정도성을 표현했던 ‘-(으)스-’이 분석된다.

그런데 (8)의 ‘번쩍하다, 거칠하다’는 감각표현에 있어 특이한 의미를 나타낸다. ‘번쩍하다’는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어 조금 흰하다’는 의미를 갖는 ‘번하다’와 비교하여 번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거칠하다’ 역시 일시적으로 표면 재질이 거칠어진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점<sup>4)</sup>을 고려하면 정도성 표현과 함께 해당 감각의 시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는 것으

3) 여기서 어근형성요소로 분석한 ‘-테데-’는 ‘테데하다’는 ‘변변하지 못하여 보잘 것 없다’의 뜻을 갖는 ‘테데하다’의 어근으로 볼 수도 있다. 색채형용사에 나타나는 ‘(거무)튀튀, (거무)칙칙, (거무)충충’ 등은 모두 ‘튀튀하다, 칙칙하다, 충충하다’와 같은 형용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정근, 앞의 논문, 69쪽.

4) ‘그는 피부가 (거칠다/거칠하다).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거칠하다/거칠어졌다/거칠다).’ 등을 비교해 보면 ‘거칠다’가 비교적 항구적인 속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반면, ‘거칠하다’는 일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어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논문, 121쪽.

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의미 기능이 어근형성요소의 보편적인 감각표현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근형성요소가 형태론적인 기능이 다른 의성·의태어의 말음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확인된다.

(9) 무르다 - 물렁하다, 물경하다, 물씬하다, 물커덕하다

(9)는 ‘무르다’의 어간에 ‘-렁-, -경-, -씬-, -커덕.’ 등의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미는 위에서 검토한 정도성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 시간적 분포의 의미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각의 수용자가 외부 자극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들은 의태어에 가까운 의미특성을 보이는데 ‘물렁물렁, 물경물경, 물씬물씬, 물커덕물커덕’ 등과 같이 중첩을 통해 의태부사로 사용된다.

(9)에서 분석된 어근형성요소 ‘-렁-, -경-, -씬-, -커덕.’ 등은 ‘그렁그렁, 덜렁덜렁; 썰렁썰렁, 덜렁덜렁, 늘씬, 얼씬, 발씬, 흠씬; 덜커덕, 울커덕, 철커덕’ 등의 의성어나 의태어 말음과 동일한 형태라는 점이 흥미롭다. 의성어나 의태어의 말음이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9)의 어근형성요소가 문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의성·의태어의 말음과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적 차원에서 이들이 어떤 감각에 대한 수용자의 느낌을 그대로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 접사의 감각표현

‘하다’를 제외하고 감각표현과 관련된 접사로는 접두사 ‘시/셋-, 드-’와 접미사 ‘-다랑-’이 대표적이다. 색채형용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시/새/싯/셋-’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접사 ‘시/새/싯/셋-’과 색채형용사의 결합 양상



	검다	희다	노르다	붉다	푸르다
새, 셋	새까맣다 새카맣다	새하얗다	셋노랗다	새빨강다	새파랗다
사, 싯	시꺼맣다 시커맣다		싯누렇다	시뻘겑다	시퍼렇다

(10)에서 ‘새, 셋’은 양성 모음을 갖는 여기들과 결합하고 ‘사, 싯’은 음성모음을 갖는 여기들과 결합하는 분포를 보인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후행하는 여기가 비음과 같은 공명음으로 시작할 때는 ‘셋, 싯’ 등이 쓰이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등으로 시작할 때는 ‘새’와 ‘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 셋, 사, 싯’ 등의 접두사를 이형태 관계로 설명하는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이병근(1986)과 송철의(1992)에서는 명암(明暗)과 농담(濃淡)에 따라 이들이 별개의 형태와 의미를 갖는 접사로 보았다.<sup>5)</sup>

접두사 ‘새, 셋, 사, 싯’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이형태로 보든 개별적인 의미 특성을 갖는 독립된 접두사로 보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결합하는 해당 색채의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병근(1986), 송철의(1992)의 분류에서 명암과 농담의 측면에서 밝고, 옅은 영역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새’조차도 ‘파랗다-새파랗다’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노랑의 의미 영역에서 더 노란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접두사 ‘새, 셋’은 ‘새맴다<sup>6)</sup>, 셋맴다, (참고) 셋말강다’ 등의 단어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도 의미는 더 맑은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색채형용사와 동일하다. 감각표현과 관련된 접사로는 ‘드’도 확인된다.

5) 이병근(1986)과 송철의(1992)의 ‘새, 셋, 사, 싯’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병근,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권 3집(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6), 395쪽;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태학사, 1992), 205쪽.

	명(明)	암(暗)
농(濃)	셋-	싯-
담(淡)	새-	사-

6) 『표준사전』에는 ‘새맴다, 셋맴다’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새/셋’의 관계에 대해 한글 맞춤법을 고려하면 ‘새맴다’는 성립하기 어렵다.

(11) 가. 드뭇다, 드뭇다, 드넓다, 드높다

나. 드다르다, 드세다, 드바쁘다, 드달리다, 드덤비다, 드숫다

(11가)는 감각표현의 형용사에 ‘드-’가 결합된 예이고, (11나)는 ‘다르다, 세다, 바쁘다’와 같은 형용사나 ‘달리다, 덤비다, 숫다’ 등의 동사에 접사 ‘드-’가 결합된 단어들이다. 『표준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11)의 ‘드-’는 공통적으로 ‘아주, 몹시’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의미는 본고의 정도성 표현의 측면에서 보면 (11가)의 ‘드-’가 해당 감각의 영역에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감각표현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와 같이 접미사 ‘-다랗-’ 의미 역시 해당 감각의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

(12) 가. 기다랗다/짧따랗다, 넓따랗다/좁다랗다, 굵다랗다/가느다랗다, 커다랗

다/작다랗다, 두껍다랗다/얇따랗다

나. 머다랗다/\*가깝다랗다, 높다랗다/\*낮다랗다, 깊다랗다/\*얕다랗다

(12가·나)에서 ‘-다랗-’은 송철의(199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긍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와의 결합이 더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어근형성요소 ‘-찍-, -쭈-’ 등의 양상과 유사하다.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가깝다, 낮다, 얕다’ 등은 ‘-다랗-’과 결합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모두 일차원적인 크기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차원적 크기를 나타내지만 ‘짧다’는 ‘짧따랗다’가 가능하며, 일차원적인 크기를 나타내며 부정적 가치를 표현하는 형용사들은 ‘-다랗-’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일반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12가) ‘-다랗-’의 의미가 강한 정도성을 표시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이들의 개념을 척도 상에서 확인해 보면 그 방향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즉 ‘길다’의 강한 정도는 더 긴 상태를 나타내지만 ‘짧다’의 강한 정도성 표시는 더 짧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감각표현에서 접사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감각의 강한 정도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내적변화를 통한 감각표현

한국어에서 내적변화(internal change)는 단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감각표현에서도 자·모음 교체가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로 이용된다. 감각표현에 있어 내적변화는 변화의 대상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자음교체의 예를 살펴보자.

- (13) 가. 동그랗다-똥그랗다, 새까맣다-새카맣다, 길쭉하다-깎쭉하다  
 나. 달짝지근하다-달착지근하다, 시금하다-시킴하다

(13가)는 어간이나 어근의 자음교체가 확인된다. ‘동그랗다-똥그랗다’에서는 접사 ‘-앙’과 결합하는 어근의 자음 교체가 일어났고, 접두사 ‘새-’와 결합하는 어간 ‘까맣-’과 ‘카맣-’에서 ‘ㄱ-ㄱ’의 자음 교체를 하고 있다. 어근형성요소 ‘-쭉-’이 분석되는 ‘길쭉하다’에서는 어간 ‘길-’의 자음교체가 확인된다. (13가)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의 결합에서 실질형태소의 자음교체의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3나)에서는 ‘-짝지근-’과 ‘-착지근-’, ‘-금-’과 ‘-킴-’에서와 같이 어근형성요소의 자음교체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모음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자.

- (14) 가. 노릇하다-누릇하다, 둥글다-동글다, 기름하다-가름하다, 시킴하다-새  
 큼하다  
 나. 달곰하다-달금하다, 매콤하다-매콤하다  
 다. 씹쓰레하다-씹싸래하다, 짹짹하다-짹짹하다

(14가)는 어근이나 어간의 모음교체가 확인되는 단어 쌍들이고 (14나)는 어근형성요소 ‘-곰-’과 ‘-금-’, ‘-콤-’과 ‘-킴-’의 모음교체를 보이는 예들이다. (14다)는 중첩된 어간이나 이에 결합된 어근형성요소 모두가 모음교체를 겪은 단어들이다. ‘짹짹하다-짹짹하다’의 관계에서는 ‘짜-’가 중첩된 ‘짹짹’이 ‘짹짹’로 모음교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어간 중첩 이후 어근형성요소 ‘-레-’가 결합된 ‘씹쓰레’의 모든 모음이 교체를 통해 ‘씹싸래’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14)는 내적변화를 겪는 단위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적변화를 자음교체와 모음교체로 나누고 자·모음 교체를 통해 확인되는 감각표현 양상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자음교체와 감각표현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자음교체는 평음과 경음의 교체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 (15) 가. 길쭉하다-길쭉하다
- 나. 둥그스름하다-뚱그스름하다
- 다. 비뚤다-삐뚤다, 발갡다-빨갡다
- 라. 서늘하다-씨늘하다
- 마. 질기다-찢기다

(15가)는 ‘ㄱ-ㄱ, ㄷ-ㄷ, ㅂ-ㅂ, ㅅ-ㅅ, ㅈ-ㅈ’의 자음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다. 한국어에서 경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음 5개 모두 자음교체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ㅅ-ㅅ’의 교체 예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시큼하다\*씨큼하다’와 같은 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15)는 모두 평음보다는 경음으로 표기된 형용사의 의미가 강한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길쭉하다’는 ‘길쭉하다’보다 조금 더 긴 상태를 나타내고, ‘찢기다’는 ‘질기다’보다 더 질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15다)의 ‘발갡다-빨갡다’와 같은 색상의 경우에도 ‘빨갡다’가 더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의 정도성은 얼마나 더 선명하게 그 색에 가까운가 즉, 색감<sup>7)</sup>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빨갡다’가 ‘발갡다’보다 더 강한 색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음교체의 양상과 관련하여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7) 색감이란 용어 대신 일반적인 미술용어이면서 손세모돌(2000)에서도 사용한 바 있는 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채도는 무채색(희다, 검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단어 뜻도 어려운 감이 있어 선명함의 정도를 ‘색감’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손세모돌,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한말연구학회, 2000), 145~152쪽.

- (16) 가. \*시꺼멓다-시꺼멓다-시꺼멓다  
 가. 거멓다-꺼멓다-\*꺼멓다  
 나. 새콤하다-새콤하다  
 다. 달짝지근하다-달착지근하다

(16)에서는 ‘평음-경음’의 교체, ‘평음-격음’의 교체, ‘경음-격음’의 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6가·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평음-경음 교체를 보이는 ‘거멓다-꺼멓다’가 접사 ‘시’가 결합된 경우 경음-격음의 교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접사 ‘시’가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한 정도성을 보이는 ‘시’는 자음교체 양상에서도 가장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거멓다’보다는 강한 정도성을 보이는 ‘꺼멓다’와의 결합이 더 의미적으로 어울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6나·다)에서도 평음, 경음, 격음이 모두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그 감각표현에 있어서는 모두 ‘평음<경음<격음’ 순으로 해당 감각의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모음교체와 감각표현

자음교체에 의한 감각표현이 해당 감각의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 모음교체에 의한 감각표현은 단어부류에 따라 감각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우선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7) 가. 까맣다-꺼멓다, 노랗다-누렇다, 빨갳다-빨겡다, 파랗다-퍼렇다, 하얗다-허영다  
 나. 말그스름하다-멀그스름하다, 환하다-훤하다, 보양다-부영다  
 다. 까칠하다-꺼칠하다, 싸늘하다-씨늘하다, 녹실하다-눅실하다

(17)은 ‘ㅏ-ㅓ, ㅗ-ㅛ’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교체를 보이는 예들이다. (17가)는 색채와 관련된 형용사이고 (17나)는 명암과 관련된 형용사이며 (17다)는 촉각과 관련된 형용사로 재질, 온도, 습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다.

(17)은 기본적으로 해당 감각의 정도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음교체와 유사한

명이 있다. (17가·나)에서 양성모음에 비해 음성모음이 쓰인 단어는 조금 더 어두운 의미를 갖는다. ‘노랗다’에 비해 ‘누렇다’는 조금 어두운 노란 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색채형용사의 자음교체가 색감의 정도성 표현과 관련된다면 모음교체는 명암의 정도성 표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17다)에서도 양성모음보다 음성모음이 사용된 단어가 해당 감각의 더 강한 정도를 보이는데 ‘까칠하다’보다 ‘꺼칠하다’가 거친 정도에 있어 강한 위치를 차지한다. ‘싸늘하다-씨늘하다, 녹실하다-녹실하다’ 역시 온도나 습도의 측면에서 음성모음이 사용된 단어가 더 강한 정도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교체가 가치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을 살펴보자.

- (18) 가. 노랗다-누렇다, 빨갳다-빨겡다, 하얗다-허엿다  
 나. 기름하다-가름하다, 길쭉하다-갈쭉하다, 길찍하다-갈찍하다  
 다. 짹짹하다-짹짹하다, 달콤하다-덜콤하다

(18)은 모음교체의 양상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체 외에도 중립모음에 해당되는 ‘ㅣ’와 양성모음 ‘ㅏ8), ㅑ’의 교체도 확인된다. (18가)는 (17)에서 살핀 색채형용사 가운데 일부이고, (18나)는 크기와 관련된 시각형용사이며, (18다)는 미각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다. (18)에서는 해당 감각에 대한 일정한 가치판단이 모음교체를 통해 나타나는데 양성모음이 긍정적인 평가라면 음성모음은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18가)의 색채형용사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위에서 살핀 음성모음이 갖는 어두운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인 어두운 의미가 가치평가의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18다)의 ‘달콤하다-덜콤하다’의 ‘ㅏ-ㅑ’의 교체에서는 단 정도의 차이도 확인되지만 가치판단의 의미가 부각된다.

중립모음과 양성모음의 교체를 보이는 (18나)와 (18다)의 ‘짹짹하다-짹짹하다’에서도 모음교체가 정도성 표현과 함께 가치평가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9)

8) 송철의(1992)에서는 기원적인 ‘이’는 ‘야’로 교체되는 반면, ‘의’로부터 발달한 ‘아’는 ‘애’로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여기서 제시한 ‘길다’와 관련된 ‘길쭉-갈쭉’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식다’와 관련된 ‘시름-새름’을 들 수 있다. 송철의, 앞의 책, 297쪽.  
 9) 송정근, 앞의 논문, 106쪽.

(19) 가. 손가락이 기름하다/가름하다.

나. 얼굴이 길쭉하다/갈쭉하다.

다. 목이 길쭉하다/갈쭉하다.

(19)에서 ‘기름하다, 길쭉하다, 길쭉하다’는 ‘길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음-, -쭉-, -씩-’ 등이 결합한 단어인데 긴 정도성에 있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강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어형들의 모음교체형인 ‘가름하다, 갈쭉하다, 갈쭉하다’는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성 표현의 의미보다는 가치평가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가름하다, 갈쭉하다, 갈쭉하다’는 ‘기름하다, 길쭉하다, 길쭉하다’보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의미가 있어 ‘보기에 좋다’ 정도의 의미가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보다 더 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0)</sup>

모음교체가 주로 정도성이나 가치판단의 감각표현 기능을 보이는데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동글다-동글다, 둥그랗다-둥그랗다’에서는 모양이 아닌 대상의 크기와 관련되는 의미가 파악되어 특이하다. 즉 ‘동글다-동글다’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대상의 둥근 정도나 긍정, 부정의 가치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대상이 작은 경우에는 ‘동글다’, 대상이 큰 경우에는 ‘둥글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둥그랗다-둥그랗다’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의미 차이가 확인된다. 형용사가 표현하는 의미가 모양에서 크기로 전이된 것이다. 이는 ‘동글하다-똥글하다’와 같은 자음교체에서는 경음으로 표현한 ‘똥글하다’가 ‘동글하다’보다 둥근 정도가 더 강해 원에 더 가까운 느낌을 갖는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10) ‘기름하다-가름하다’ 등의 중성모음과 양성모음의 교체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을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가치판단과 정도성의 의미 관계 설정에 있어 양성모음으로 구성된 단어가 적당한 정도의 길이를 의미해서 긍정적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인지, 긍정적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어 적당한 정도의 길이라는 정도성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 IV. 중첩을 통한 감각표현

중첩(reduplication)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형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통사론적인 차원에서의 중첩과 단어 내부에서의 형태론적 중첩으로 나뉠 수 있고, 동일한 어형이 반복되는 완전중첩과 유사한 어형의 반복인 부분중첩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서는 감각표현과 관련된 형태론적 중첩만을 다루고 대부분 완전중첩에 해당된다. 감각표현과 관련된 중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20) 가. 등글등글하다, 비뿔비뿔하다, 거칠거칠하다  
 나. 희끗희끗하다, 길쭉길쭉하다, 넓적넓적하다  
 다. 크디크다, 짜디짜다, 검디검다, 차디차다  
 라. 짹짹하다, 떨떨하다,<sup>11)</sup> 씹쓸하다

(20가)는 어간이 중첩을 이루고 접사 ‘-하-’가 결합된 단어들로, ‘등글-, 비뿔-’ 등의 중첩을 확인할 수 있다. (20나)는 어간과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어근의 중첩을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 어간 ‘희-’에 어근형성요소 ‘-끗-’이 결합된 ‘희끗’이 중첩된 것이다. ‘길쭉, 넓적’ 역시 동일한 단위이다. (20다)는 어간이 ‘-디-’를 매개로 하여 중첩된 예들이다.<sup>12)</sup> (20라)는 일부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분석되는 중첩으로 어간의 중첩형에 어근형성요소 ‘-르-’과 접사 ‘-하-’가 분석되는 경우이다. ‘짜-, 쓰-’의 중첩에서는 중세어 단계에서 어두자음군을 형성하던 ‘ㅂ’이 화석형으로 남아 있어 흥미롭다.

(20)에서 확인되는 중첩이 모두 동일한 감각표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중첩의 유형에 따라 그 감각표현 기능을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감각표현의 기능이 비교적 명확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 11) 미각과 관련된 ‘떨떨하다’는 『표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떨다’와 관련된 어휘로 일상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씹쓸하다-씹쓰름하다, 짹짹하다-짹쓰름하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떨떨하다’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떨떨하다’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준다.
- 12) ‘-디-’의 문법적 지위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미로 보기에 결합할 수 있는 어기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접사로 보기에 형성하는 단위가 일반적인 접사와는 이질적이다. 송정근(2007)에서는 ‘-디-’와 결합된 ‘검디, 희디, 길디’ 등이 어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어근형성요소로 설정한 바 있다. 송정근, 앞의 논문, 40~41쪽.



- (21) 가. 검디검다, 희디희다, 누르디누르다, 붉디붉다, 푸르디푸르다  
 나. 흐르디흐리다, 질디질다, 열디열다  
 다. 길디길다, 높디높다, 크디크다  
 라. 거칠디거칠다, 둥글디둥글다,  
 마. 쓰디쓰다, 맵디맵다, 시디시다, 짜디짜다,

(21)은 ‘-디-’를 매개로 한 어간의 중첩 양상을 보이는 단어들이다. ‘-디-’를 매개로 한 중첩은 색채(21가)나 명암(21나), 크기(21다) 등을 나타내는 시각형용사, 촉각형용사(21라), 미각형용사(21마) 등에서 폭넓게 확인된다. (21)에서 확인되는 중첩의 의미는 해당 감각의 가장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검디검다’는 검은 정도 표현에서 가장 검은 정도를 나타내고 ‘쓰디쓰다’는 쓴 정도성 표현에서 가장 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검디검다’에 대한 『표준사전』의 뜻풀이에서 ‘더할 나위 없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강한 정도성은 앞서 살핀 어근형성요소나 자음교체를 통한 강한 정도성 표현보다도 더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디-’를 매개로 한 어간의 중첩은 한국어 화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정도성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첩의 감각표현이 정도성 표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22) 가. 동글동글하다, 비뿔비뿔하다, 거칠거칠하다, 흐리흐리하다  
 나. 반질반질하다, 미끌미끌하다, 부들부들하다

(22가)는 어간이 직접 중첩되고 접사 ‘-하-’가 결합된 단어들이다. 이들은 (21)에 비해 그 수도 적고 모두 이음절 어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2나)는 ‘반지럽다, 미끄럽다, 부드럽다’ 등의 촉각 형용사를 형성하는 어근 ‘반질, 미끌, 부들’의 중첩이 확인되는 단어이다. 이들은 접사 ‘하다’를 제외한 ‘반질반질, 미끌미끌, 거칠거칠’ 등이 의태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특징이 있다.

(22)는 감각표현에 있어 정도성의 의미도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대상 감각의 분포를 드러내는 의미 기능이 확인된다. ‘비뿔다-비뿔비뿔하다’의 의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비뿔비뿔하다’가 ‘비뿔다’에 비해 더 많이 비뿔어진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이 하나가 아닌 복수라는 의미도 나타내는 것이다.

(23) 가. 이 종이에 그려진 줄들은 모두 (비뚜네/비뿔비뿔하네).

가'. 기차가 (\*뻘뻘/뻘뻘한/뻘뻘뻘한) 철길 위를 신나게 달린다.

나. 책상 모서리를 만져보니 마감작업이 잘못되어 표면이 (거치네/거칠하네/거칠거칠하네)

(23가)에서 ‘비뿔다, 비뿔비뿔하다’ 모두 성립이 가능하나 ‘비뿔비뿔하다’가 비뿔 정도가 더 큰 느낌이 든다. (23가)에서는 비뿔 상태의 분포가 복수임을 전제하고 있어 ‘뻘뻘’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뻘뿔다’는 단순히 바르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 반면, ‘뻘뿔뻘뿔하다’는 비뿔 분포가 여러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길의 일반적인 모습이 단순히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여러 곳이 비뿔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기에 ‘뻘뿔뻘뿔하다’가 더 적합한 것이다.<sup>13)</sup>

(23가·가)에서는 ‘\*비뿔하다’가 존재하지 않아 의미 비교가 완전하지 않으나 (23나)에서는 ‘거칠하다, 거칠거칠하다’가 모두 존재하여 중첩의 의미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거칠하다’가 대상이 거친 재질 상태를 갖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비해 ‘거칠거칠하다’는 거친 재질 상태의 분포가 여러 군데에 걸쳐 있다는 의미가 느껴진다. ‘거칠거칠’에 대한 『표준사전』의 뜻풀이에서도 감각 대상의 분포와 관련된 ‘여러 군데’와 정도성을 표시하는 ‘몹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2나)의 어근의 중첩에서는 ‘\*반질하다’는 존재하지 않고, ‘미끌하다’는 존재하나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용법만을 갖고 있어 중첩형과의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부들하다-부들부들하다’를 비교해보면 이들의 의미도 ‘거칠거칠하다’와 같이 감각 대상의 분포와 정도성을 동시에 모두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첩의 감각표현이 정도성과 함께 해당 감각의 분포와 관련된다는 점은 다음의 예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13)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을 통해 ‘비뿔다-비뿔비뿔하다’의 의미 차이에 대한 기술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 (24) 가. 거뭇거뭇하다, 노릇노릇하다, 빨긋빨긋하다, 푸릇푸릇하다, 희끗희끗하다  
 나. 흐릿흐릿하다, 번쩍번쩍하다  
 다. 길쭉길쭉하다, 높직높직하다, 기름기름하다  
 라. 구뭇구뭇하다, 성깃성깃하다, 기웃기웃하다  
 마. 녹신녹신하다, 질척질척하다

(24)는 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어근의 중첩을 보이는 예로 색채(24가), 명암(24나), 크기(24다), 모양(24라)을 나타내는 시각형용사들과 습도(24마)와 관련된 촉각형용사들이다. 이들은 어간의 중첩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각의 분포와 정도성이 모두 표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릇하다-노릇노릇하다’를 비교해보면 ‘노릇하다’가 약한 정도의 노란색을 표현한다면 ‘노릇노릇하다’는 노란색의 색감은 ‘노릇하다’보다 강하고, 그 분포가 여러 지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sup>14)</sup> 특히 ‘번쩍하다’와 관련된 ‘번쩍하다-번쩍번쩍하다’를 비교해보면 해당 감각 대상의 복수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 어간의 중첩이 나타난 예이다.

- (25) 씹쓸하다, 짹짹하다, 떨떨하다

미각표현에서는 ‘-디-’를 매개로 한 어간 중첩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중첩의 예는 (25)가 전부이다. 미각표현의 중첩 방식도 특이한데 ‘씹쓸하다’와 같이 어간이 직접 중첩되고 그 뒤에 어근형성요소 ‘-르-’와 접사 ‘-하-’가 나타난다. 미각표현에서 이러한 방식의 중첩 역시 (25)의 예가 전부이다.

(25)의 ‘씹쓸하다, 짹짹하다, 떨떨하다’는 약한 정도의 미각 상태를 나타내 다른 중첩의 의미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짹짹하다’는 가치판단의 의미까지 포착되어

14)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어에 따라 (24)의 분포적 의미가 완전히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거뭇거뭇하다’는 한 대상에 쓰여 ‘군데군데’의 분포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길쭉길쭉하다’는 여러 대상에 쓰여 ‘모두’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런데 대상 자체가 아닌 해당 감각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면 ‘거뭇거뭇하다’나 ‘길쭉길쭉하다’ 모두 해당 감각의 분포가 복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겠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약간 짠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비해 ‘쑤쑤하다, 떨떨하다’는 그러한 가치판단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여 이들 사이에서의 이질성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확대된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쑤쑤하다’는 기분이나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짹짹하다’ 역시 행동이 야무지거나 실속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각표현에서 확대된 의미는 감각표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미각의 감각표현에서 중첩은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형태론적 절차로만 이해할 수 있겠다.

## V. 감각표현을 위한 형태론적 절차의 상관관계

앞 장에서 살펴본 형태론적 절차들의 감각표현 양상을 정리해보면 모든 형태론적 절차가 감각의 정도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대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감각표현에 있어 그 자극의 크기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개인적 욕구나 사회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형태론적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표현을 위해 다수의 형태론적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감각표현의 개별 형태론적 절차들이 주로 담당하는 의미 영역 즉 강한 정도성과 약한 정도성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근형성요소가 주로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데 비해 접사는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다’를 매개로 한 어간의 중첩은 형태소 결합이나 내적변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근형성요소 가운데 강한 정도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음교체를 통한 의미 정도성 표현은 형태소 결합이나 중첩에 의한 정도성 표현과 차별되지 않아 모든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가 자신만의 정도성 표현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형태론적 절차들의 정도성 표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핀 몇 개의 예들을 다시 살펴보자.

- (26) 가. 불그스름하다, 거칫하다, 등긋하다, 가느스름하다  
 나. 길쭉하다-길쭉하다, 질기다-찢기다, 서늘하다-씨늘하다  
 다. 검디검다, 크디크다, 쓰디쓰다, 높디높다

(26가·나·다)를 비교해 보면, 어근형성요소를 통한 정도성 표현은 해당 감각 주변의 다른 감각과의 대비 속에서 상정될 수 있는 성격의 정도성인 반면, 자음교체에 의한 표현된 정도성은 해당 감각의 의미 영역 내에서만 상정될 수 있는 정도성이라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즉 ‘불그스름하다’는 어떤 인식 대상이 ‘붉다, 노랗다, 검다’ 등의 색채 가운데 ‘붉다’에 가깝다는 의미가 느껴지는 반면, ‘길쭉하다, 길쭉하다’는 ‘길다’라는 의미 영역 안에서 그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음이나 모음교체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더 강한 정도나 약한 정도를 나타내므로 주위의 다른 영역의 감각과의 비교가 어려운 반면 어근형성요소는 ‘약간 어떠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해당 감각 주위의 다른 감각과의 비교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26다)의 중첩 역시 정해진 의미 영역 안에서의 정도성이라는 점은 자음교체와 동일하지만 자음교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성 영역보다 더 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태소 결합, 내적변화, 중첩의 정도성 표현이 이렇듯 명확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면 모든 감각어들에 이러한 절차가 고르게 적용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감각과의 비교를 통한 정도성 표현, 해당 감각 내부에서의 정도성 표현, 극한의 정도성 표현 등은 별개의 표현이므로 하나의 감각에 대한 온전한 정도성 표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론적 절차가 모두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확인되는 단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상적인 언어표현에서도 이들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높직하다’, ‘새파랗다’, ‘빼뜯다’ 모두 ‘아주 어떠하다’라는 강한 정도성의 의미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의 형태론적 절차를 통해 감각의 정도성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형태론적 절차는 위축되어 나타나지 않거나 정도성 표현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화자들이 이들을 별개의 정도성 표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크기를 나타내는 ‘길다’는 ‘기다랗다, 길찍하다, 길디길다’ 등과 같이 형태소 결합, 중첩 등을 통해 강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반면 내적변화에 의한 정도성 표현은 ‘길쭉하다-길쭉하다’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모양을 나타내는 ‘둥글다’의 형태소 결합이나 중첩 등의 방식으로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 ‘동그랗다-똥그랗다, 동그스름하다-똥그스름하다, 둥글둥글하다-똥글똥글하다’ 등 대부분의 관련 어휘에서 자음교체를 통한 정도성 표현이 확인된다.

또한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 ‘달콤하다-달콤하다-달콤하다-달콤하다’ 등 어근형성요소와 내적변화를 통한 방식과 ‘다디달다’와 같이 ‘-다.’를 매개로 한 어간 중첩을 통해 강한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어근의 중첩은 발견되지 않는다. ‘썩썩하다, 짹짹하다’ 등의 특수한 어간 중첩이 발견되나 이들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기능은 갖지 못한다.

결국 감각의 정도성 표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론적 절차가 존재하나 하나의 단어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절차들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각의 유형이나 단어에 따라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본고는 한국어의 감각표현이 다양한 형태론적 절차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 근거하여 형태소 결합, 중첩, 내적변화 등의 개별 형태론적 절차에 따른 감각표현 양상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태소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에서는 어근형성요소와 접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어근형성요소는 감각의 정도성, 부정적 가치평가, 해당 감각의 분포 등을 표현하는데 해당 감각의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접사는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
- (2) 내적변화에 의한 감각표현에서 자음교체는 정도성을 표현하고 모음교체는 정도성 표현도 나타내지만 가치평가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 (3) 중첩에 의한 감각표현은 강한 정도성이나 감각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 (4) 세 형태론적 절차는 공통적으로 감각의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의 정도성 표현에 이들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본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형태론적 절차와 의미표현 양상의 관계만을 다루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원리나 규칙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고의 논의가 더 큰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감각표현에 어떤 형태론적 절차가 이용될 것인가 예측까지도 가능한 원리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 감각표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한국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는 작업도 한국어 감각표현의 특수성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하겠다.

또한 한국어 감각표현과 관련된 형태론적 연구는 고유어 계열의 한국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는 한국어 고유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밝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론적 절차뿐만 아니라 고유어 형용사의 구성 및 구성 성분들에 대한 연구나 고유어들의 단어형성 원리에 대한 연구 등을 보강하여 고유어 계열의 형태론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관,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15~50쪽.  
 김창섭,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149~176쪽.  
 손세모돌,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000, 133~165쪽.  
 송정근,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1992.  
 이병근,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6, 389~408쪽.

### 국 문 요 약

한국어의 어휘적 감각표현은 형태소 결합, 중첩, 내적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론적 절차와 관련이 깊다. 형태소 결합을 통한 감각표현에서는 어근형성요소와 접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어근형성요소는 감각의 정도성, 부정적 가치평가, 해당 감각의 분포 등을 표현하는데 해당 감각의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접사는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다. 내적변화에 의한 감각표현에서 자음교체는 정도성을 표현하고 모음교체는 정도성 표현도 나타내지만 가치평가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중첩에 의한 감각표현은 강한 정도성이나 감각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세 형태론적 절차는 공통적으로 감각의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의 정도성 표현에 이들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 투고일 : 2009. 7. 9.      ● 수정일 : 2009. 8. 28.      ● 게재확정일 : 2009. 9. 10.
- 주제어(keyword) : 감각표현(sensorial expression), 형태소 결합(compounding of morpheme), 중첩(reduplication), 내적변화(internal change).